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중심

뚜렷하고 확고하며
균형 잡힌 마음

審 살펴갈 내일!
: 살필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2019
10

Vol. 521



2019.10



'중심'은 나의 생각을 뚜렷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취합니다. 타인과 의견을 조정하거나 협력할 때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법이죠. 이번 호 월간 <교정>에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날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10월호 (통권 521호) 63권 10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제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
- 06 마음을 열다
- 08 테마를 넘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10 사람을 읽다
계요병원 함웅 원장
서울구치소 자문의
- 14 역사를 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우주의 중심을 일깨우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 16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중심'



뜻깊은 오늘 +

- 18 교정은 행복을 싣고
“꽝 나와도 즐겁고 상품 타면 기쁘고, 월 하든 즐거워요”
(전주교도소)

- 22 영화 같은 하루
블링게임의 재미는 스트라이크? 하이파이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심인방)

- 26 일상 상담소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을 잃은 당신에게
- 28 마음 나침반
당신의 마음, 얼마나 견고한가요?

- 30 시간을 달리는 교정
가족 만남,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해
- 32 여행 따라 잉글리쉬
성큼성큼 히말라야를 향해 한 걸음, 네팔
+ 운전과 관련한 영어 표현

- 36 신조어백과
킬포 & 네무새
- 38 글로벌 핫클릭
필리핀, 수용자 간 난투극
과밀수용으로 인한 잠자리 다툼이 원인



살펴갈 내일 !

- 40 여민 교정
추석을 맞아 교정공무원이 전한 행복한 에너지

- 44 HEADLINE
제39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분부장회의
-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교정공무원 30년, 교정학 교수 3년

- 50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 52 교정을 말하다
교정기관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下)
-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3 모범공무원 소개
- 64 국민이 전하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 65 날말퀴즈
- 66 독자의 소리

제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짚어지고 가겠습니다. 짚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 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나갑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조 국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이다.”

– 토비어스 스몰렛(영국 소설가) –

도시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우주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 나 자신은 거대한 우주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허무함이 듭니다. 이럴 때 회의감에 젖어 하는 일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과 일상 그리고 일과 생각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훌러가고, 내가 없으면 우주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는 세상의 중심이자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이 나를 아무리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 오뚝이로 만들어 줍니다. 비록 우리는 우주에 비해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 진정성 가득한 개인의 삶은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하여 나는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오뚝이처럼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길, 중심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테마를 넘다

희망찬
마음 =

글 김경집(인문학자,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중심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궁극의 덕은 중용이라고 하였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다. 동양에서도 중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중용은 바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게 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실천적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옛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그들은 성격도 각각 다를 것이며 성취한 바도 각양각색이었을 것이다. 서로 끌리는 사람도 있고 꺼리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터였다. 어떤 집단이건 모이면 비교하게 되는 것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여쭈었다.『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자공이 “사(師, 자장)와 상(商, 자하)은 누가 더 낫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가 낫습니까?”라고 하자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過猶不及)”라고 하였다.

자공은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열 명(孔門十哲)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재아(宰我)와 더불어 언어에 뛰어난 재주를 지녔고,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할 때 공자의 허락을 받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설득하여 노나라를 구했을 뿐 아니라 네 나라의 세력 균형을 마련한 탁월한 외교적 능력의 소유자였다. 어려서는 집안이 가난했으나 이재(理財)에도 뛰어났다. 공자의 사상이 큰 학파를 유지하고 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경제적 원조가 한몫을 하였다.

자공은 다른 사람과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당연히 그에 관한 질문을 자주 던졌다. 자장과 자하,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가를 스승에게 여준 것도 그런 한 단편이었다. 자장과 자하는 자공보다 각각 열일곱, 열셋 어린 나이였다. 자하는 공문십철에 든 사람이고 특히 문학에 재주가 많다고 평가받은 사람이었다. 자공은 사람들의 성격이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월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공자가 그런 자공의 의도를 깨뚫고 한 대답일 확률이 높다.

욕심이 과해서 혹은 자신의 열정과 성의를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이런 경우 대부분 콤플렉스의 산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자칫 관종자가 될 확률을 본인은 모른다)으로 과도한 언행을 하여 타인을 불편하게 할 때 ‘과유불급(過

猶不及)’의 의미를 넘지시 알려 주곤 한다. 처음에는 그 말에 반응하고 조심하지만 금세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되면 꺼리게 된다. 칭찬도 서너 번 들으면 질리는 데 충고를 곧이 듣는 건 깊은 우정이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꽁해서 품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증폭시켜서 폭발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어설프게 충고하기보다 상대가 그것을 담아 낼 그릇인지 먼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공자는 자공이 자신의 언변을 믿고 이리저리 입을 대거나 충고를 남발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공자가 언제나 묻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다.

공자는 자공을 많이 아꼈지만 혹여 그의 재승덕박(才勝德薄)이 발현될까 늘 경계하도록 가르쳤다. 오죽하면 공자는 자공을 가리켜 ‘그릇’이라고 했을까.『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고 말하였다. 군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달리 한 가지 재능에만 얹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해야 하며 늘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공은 군자의 덕을 이룬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냉엄하게 판단한 셈이다. 자공이 공자께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자신도 남에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자 공자는 “사야, 그건 네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子曰, 賦也, 非爾所及也)”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자공을 면박하는 게 아니다. 자공의 희망은 자신의 자질과 성향에 비해 너무 넓고 크다고 타이르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과(過)함’을 경계한 말인 셈이다.

공자는 자공이 상대적으로 오지랖이 넓어 수시로 사람을 비교 평가하고 자신의 입지를 저울질하는 것을 지적하고, 자공에게 온갖 참견과 충고로 들쑤시며 마치 자신이 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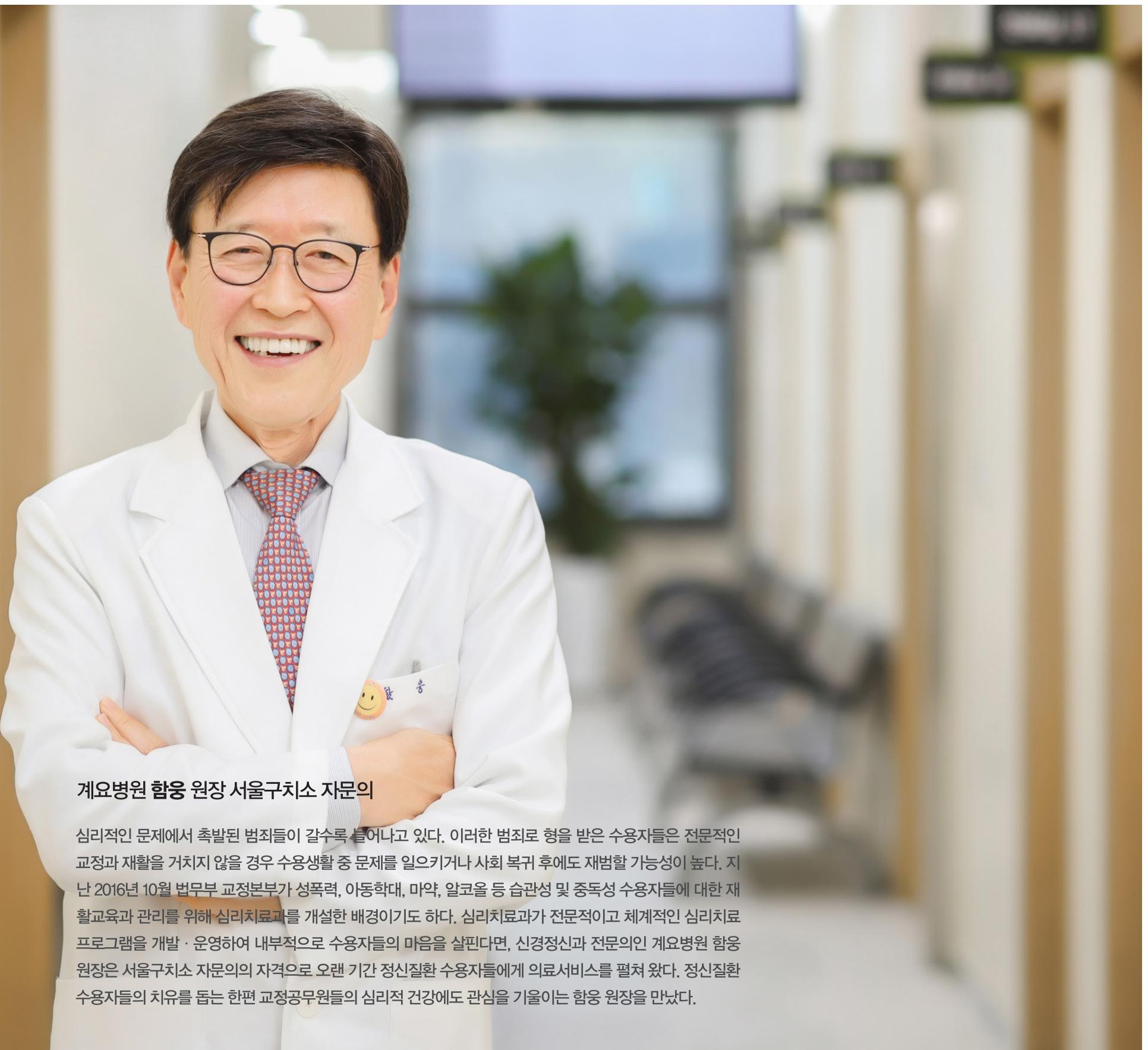
에 충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충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난 자공도 그럴진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새겨 두어야 할 말이기도 하다. 충고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과유불급의 한 방편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자체에 자신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끝내 과도한 몰입 탓에 자신도 괴롭고 상대도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될 말이다. 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의 뜻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것은 바로 그 ‘과유’의 밑동이다. 그 밑동부터 도려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 하나만 제대로 이루고 살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다. 단순히 신념과 가치가 분명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객관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망가지고 때론 타락하거나 타인을 괴롭힌다. 그럴 때 늘 명심해야 할 하나님을 고른다면 나는 과유불급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중간에서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지나친 계산에 불과하다. 과유불급의 밑동에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겸손은 지나침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모자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고려하되의롭고 덕이 될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결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공을 통해 과유불급을 배운다.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책탐』,『생각의 융합』,『엄마 인문학』,『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책탐』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계요병원 함웅 원장 서울구치소 자문의

심리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형을 받은 수용자들은 전문적인 교정과 재활을 거치지 않을 경우 수용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 복귀 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0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습관성 및 중독성 수용자들에 대한 재활교육과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과를 개설한 배경이기도 하다. 심리치료과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내부적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살피다면,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계요병원 함웅 원장은 서울구치소 자문의의 자격으로 오랜 기간 정신질환 수용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펼쳐 왔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치유를 돋는 한편 교정공무원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함웅 원장을 만났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병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계요병원 함웅 원장 서울구치소 자문의

서대문형무소 시절부터 이어 온 의료서비스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계요병원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등과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지만, 교정과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밀접하고 오래되었다. 계요병원의 전신은 1974년에 설립한 안양신경정신과의원으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으로는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의 규모와 권위를 겸비하였다. 해당 분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일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물론이고 심리학, 사회복지, 보건간호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도 명성이 높다. 서울구치소의 전신인 서대문형무소 시절부터 정신질환 수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도 계요병원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는 1980년대 초, 저의 대학 은사이자 병원 설립자인 이규항 이사장이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뒷지 않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보살피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에서였는데요. 1992년부터는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료봉사를 해 왔습니다.”

함웅 원장이 계요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건 1983년이다. 당시 병상 40여 개의 소규모 의원이었던 계요병원은 36년이 지난 지금 1,000여 개의 병상으로 무려 15배나 성장했다. 병원의 내실과 규모를 균형감 있게 키우는 것에 발맞추어 함웅 원장은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사회적으로도 기여하였다. 월 2회씩 한 번에 적게는 7~8명, 많게는 15명 이상 진료해 왔으니 어림잡아 계산해도 지금까지 3,000명은 가뿐히 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챙긴 셈이다.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함웅 원장이 도맡아 온 의료봉사를 계요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진료의 시작은 수용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함웅 원장이 그간 가장 애써 온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수용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서울구치소는 차로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준비하는 시간부터 구치소에서 소요되는 출입 절차 등을 감안하면 한 번에 최소 3, 4시간은 할애하게 됩니다. 이 중 정신질환 수용자 진료는 통상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빠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수용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들음으로써 '간이심리치료' 효과를 꾀해 왔죠." 많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입을 모아 강조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함웅 원장 또한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화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대화 상대나 대화할 여건이 여의치 않은 수용자들은 남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병원으로 보낸 손편지에는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하다고 덧붙인다.

이야기를 통한 간이심리치료는 향정신성 약물 처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함웅 원장은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처방할 것인가'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는 만큼 처방 받은 수용자에게 해당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개개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도움이 되는 수용생활 방법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는다.

교정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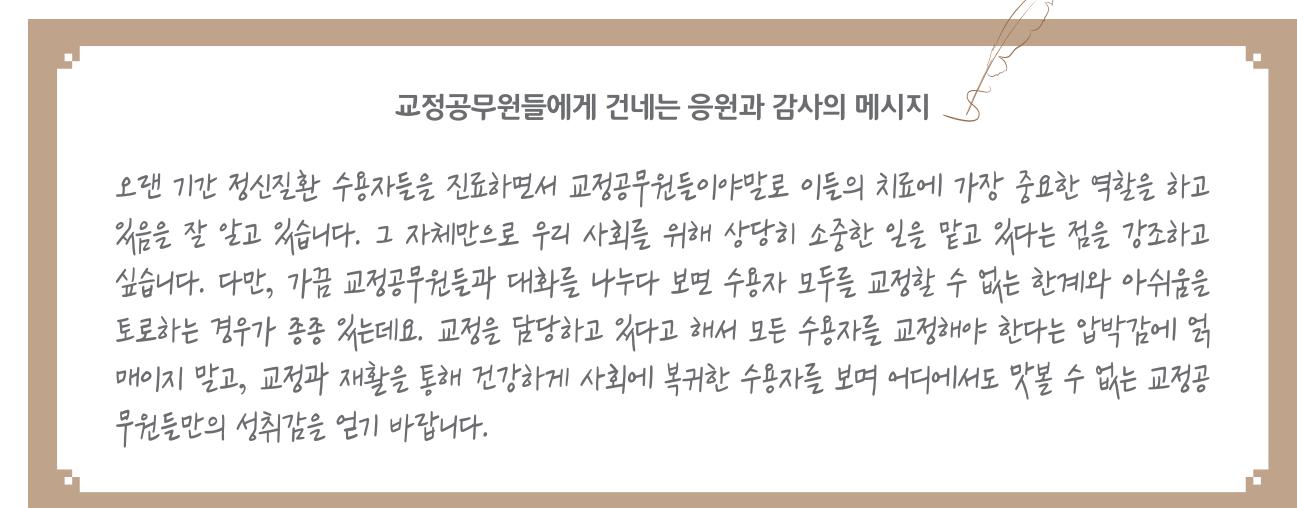
함웅 원장은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진료하면서 주어지는 잠깐씩의 짬을 가급적 담당 교정공무원들과 대화하는 데 쓰려고 노력한다. 이는 처음 의료봉사를 하러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부터 꾸준히 시도해 온 것이다. 다만 처음에는 정신질환 수용

자들 치료의 연장선, 즉 이들의 치료를 돋는 조력자로서 교정공무원들을 대하였다. "정신질환 수용자와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교정공무원들이죠. 따라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에 교정공무원이 상당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신질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이해를 돋고자 대화를 했지만, 이와 별개로 교정공무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와 심리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구치소에 갈 때마다 정신질환 수용자를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교정공무원들의 마음까지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살필 여유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올해로 27년째 교정을 드나드는 동안 지켜본 모습을 토대로 '반드시 주위에 의논할 대상을 만들라고 권유한다. 수용자와의 갈등과 고민거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공유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에 이롭기 때문이다. 또 최근 후 다른 분야에 몸담은 이들과 취미생활을 하며 환기하거나 명상을 통해 자기치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중심'을 지키는 데서 오는 굵직한 보람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함웅 원장의 꿈은 오래전에 목격



한 하나의 장면에서 구체화되었다.

"지금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멀리하고 멀시했죠. 실제로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보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때 품은 꿈을 꾸준히 공들인 끝에 이뤄 낸 것, 자신을 믿고 맡겨 준 은사의 뜻에 따라 올해로 36년째 계요병원의 원장직을 이어 온 것, 그리고 그 은사가 맺은 교정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지켜 온 것 등 함웅 원장이 의미를 둔 일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모두 곧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다. 타고난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마음을 쏟은 일에는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단단히 중심을 잡는 까닭일 것이다.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을 덧씌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의 진료 수준과 기회를 키우고자 36년째 계요병원 원장 자리를 지켜 오고 있고요. 바쁜 일정을 비집고 매달 두 번씩 정신질환 수용자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건 삶의 가치를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회적 성취감에 두었기에 가능했죠."

한 자리에서 꾸준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온 함웅 원장은 지금껏 일궈 온 것들이 제각각 더욱 반짝이는 쓸모를 찾길 바라고 있다. 우선 계요병원이 배출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심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자문의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교정에 대한 바람도 분명하다. 교정 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상주가 그것. 오랜 기간 의료봉사를 해 오면서 부족한 시간이 늘 아쉬웠다는 그. 그는 '시간이 곧 치료'인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거니와 환자의 평소 수용생활을 파악할 수 있어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정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이롭게 작용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함웅 원장의 한결같은 바람은 병원 안에서는 물론이고 수용자들과 교정공무원들에게까지 살뜰하게 미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우주의 중심을 일깨우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혼자만 다른 쪽을 향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위인이 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배척 받았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신념을 이어 간 코페르니쿠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왜 오늘날 기발하고 획기적인 생각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알 만하다.

천문학 공부에 열중한 수학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취급받았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통할 리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동설'을 뒷받침하였다.

순탄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코페르니쿠스. 1473년 폴란드의 토루니에서 평범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외삼촌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 나갔다. 23세 때부터 9년 동안 이탈리아에 유학을 떠나 철학과 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였으며 특히 로마에서 천문학자들과 월식 장면을 보게 되면서부터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기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누구도 사람에게 그 무엇을 가르칠 순 없다. 다만 그가 자신의 내면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우주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측도 어려웠기 때문에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사실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세계관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150년 경 프톨레마이오스가 쓴『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즐겨 읽었는데, 그 내용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의 운동에 관해 연구하던 코페르니쿠스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천동설' 이론에 어긋나게 움직인다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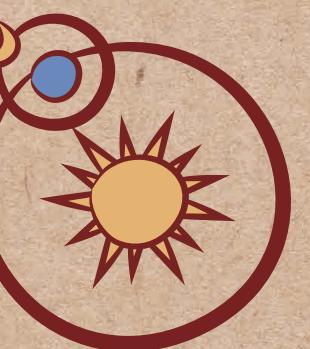
태양이 중심이 되기까지

이탈리아 유학 시절 공부한 아리스타르코스의 지동설에 영향을 받은 코페르니쿠스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동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신부로서 미사를 담당했지만 그보다 천문학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매일같이 행성을 관찰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 가며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발견은 세상을 뒤집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지만 위험히 뒤파르기도 하였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지동설이 행성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떠나던 해인 1543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그의 주장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당시 발표한 책은 1616년 금지당해 16세기 초에야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다음에야 입증되었으며 이후 뉴턴과 같은 학자들이 우주의 현상들을 지동설로 밝혀내면서 비로소 재평가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1530년부터 세상에 알려졌지만 많은 반대파에 부딪히면서 당시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이론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평생을 바쳐 천문학을 연구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뜻을 굽히지 않은 코페르니쿠스가 중심을 잘 잡아 준 덕분에 근대 과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 그처럼 획기적이고 대담한 발상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며 두고두고 회자되는 까닭이다.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중심'

10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세워야 대열이 정돈되고 흐트러지지 않듯이 뚜렷한 주관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뜻 아닐까요? 새내기 교도관이었던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 주제인 '중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실패에도 괴로워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이는 뚱심(중심)을 가지고 헤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비결은 바로 자존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 때, 나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흥교도소 교위 정우성〉

유치원 학예회 때 있었던 일이 기업닙니다. 음악에 맞춰 그동안 준비한 율동을 한껏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해 주신 제 자리에서는 멋진 유통을 뽐내기 부족했나 봅니다. 뒷자리에 있던 제가 어느새 맨 앞 중심에서 유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리에 있던 학부모님들은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이나"며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위 복종우〉

교정공무원으로 임용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네요. 아직 배울 점이 많아 선배들과 대화하며 모르는 걸 여쭤 보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알아 가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이 교정공무원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준비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선배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선배들과 함께하니 저의 초심에 중심을 채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날을 교정공무원으로 보낼 텐데, 선배들 덕분에 저의 중심을 잘 채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문영민〉

주말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저의 포지션은 중앙플레이 메이커입니다. 제가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욕심을 버리고 팀을 조율하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 쉽게 승리합니다. 이를 통해 중심의 역할이 조화와 균형, 혁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서울구치소 교도 임태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이 제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와 생각의 속도가 다르다고 화를 참지 못한 제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균형을 잡아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중심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중심이겠지요.

〈동영구치소 교위 조성문〉

요즘 생활의 중심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에 퇴근하면 모자란 잠을 보충하느라 오후 1시, 그시간까지 자고 일어납니다. 비몽사몽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오후 5시에서 6시가 되네요. 창간사한 게, 하루가 다 지나갔다는 마음에 자기 전까지 게으름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임용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야간근무 후에 생활의 '중심'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심을 다지기 위해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요. 하나하나 작은 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채워 나간다면 생활의 중심이라는 탑이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원주교도소 교도 강승열〉

중심은 오래된 삶의 주제이자 태도입니다. 중심은 중용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성현들이 중용의 가치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좀 더 양보하며 살걸, 좀 더 욕심내지 말걸 등 뭐든지 과도한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가을, 좀 더 겸허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서울구치소 교사 이대원〉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꽝 나와도 즐겁고 상품 타면 기쁘고, 뭘 하든 즐거워요”

전주교도소

가을 한낮의 햇살이 반갑기만 하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니 가을 날씨는 그 자체로 설렘마저 안겨 준다. 예향의 고장, 전주에 달으니 ‘오늘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뭇 기대감이 솟아난다. 오랜 역사가 깃든 전주교도소.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내하는 교정공무원들. 이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가을 초입의 오후, ‘교정은 행복을 살고’가 찾아간 전주교도소는 평소처럼 고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것 없이 그저 평범히 흘러가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날은 뭔가 특별함이 느껴진다. 교도소 강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책상과 의자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마주 보고 앉도록 배치한 자리로 주문한 간식이 속속 도착한다. 테이블 위에는 갓 튀긴 치킨과 따뜻한 피자, 그리고 음료수가 빼곡히 놓였다. 일사불란하게 손님 맞을 준비가 착착 진행된다.

어찌면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에 정성

과 사랑이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 할 모습을 상상하며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50여 명으로 꽉 찬 강당에 웃음소리 가득

오후 4시 언저리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고된 업무에 지치기도 한 데다 슬슬 배고픔이 찾아오는 때가 아닌가. 다행히 오늘 전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갖고 동료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주인공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4시 30분이 되자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속속 들어온다. 치킨과 피자가 한데 어우러져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돈다. 어느새 자리에는 50여 명의 인원으로 꽉 채워졌다.

진부하지만 흔히 쓰는 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자리에 앉은 직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옆자리의 동료를 쟁기며 음료를 따라주고, 간식을 권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여기 앉아서 같이 드세요!”

윤윤미 교감과 박선미 교위가 자리를 권한다. 남성 직원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여성 직원을 만나니 웬지 낯설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든다.

“전주는 정이 많은 고장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오면 누구나 정이 듬뿍 들어서 돌아갈 거예요.”

전주를 자랑하는 윤윤미 교감의 얼굴에는 내 고장과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윤윤미 교감과 박선미 교위는 모두 3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정공무원이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고되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교도소라는 폐쇄되고 특수한 공간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강도가 세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것은 그만큼 기슴속에 뜨거운 사명감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팀 이길 때마다 아이처럼 환호성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다. 자리에 앉은 대로 6명씩 한 팀이 되어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하였다. 일명 ‘인간 제로 게임’. 두 팀이 나와서 서로 마주본 후 한 팀은 서고, 한 팀은 앉는다. 서 있는 팀이 0에서 6까지 임의로 숫자를 외치는 동시에 상대 팀이 그 숫자만큼 일어나면 이기는

게임이다. 숫자를 정확히 맞출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며 승부를 가른다. 서로 상대팀이 부른 숫자를 빗겨 가자 동점의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팀이 부른 숫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상대팀의 인원수와 맞아떨어지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저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저도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두 팀씩 나와 대결을 하고 다시 이긴 팀끼리 맞붙어 최종 승리 팀을 가렸다. 1등과 2등 두 팀에게 골고루 선물이 돌아갔다. 인기 아이템인 블루투스 이어폰부터 랜덤 시계 박스, 그리고 의식 상품권과 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었다. 각자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받고 자리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

모든 피로와 시름을 잠시 내려둔 채 오직 게임하는 순간에만 집중해서일까. 승리한 팀의 직원들은 이겨서 기쁘고, 진 팀의 직원들도 경기 모습을 지켜보며 이 시간을 즐긴다.

빙고 게임, 속담 맞추기로 게임 삼매경

두 번째로 빙고 게임이 이어졌다. 앉은 자리에서 종이를 한 장씩 받은 다음, 25개 칸에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적어 채운다. 그 상태로 사회자가 불러 주는 숫자를 하나씩 지워 가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세 줄을 맞춰 빙고를 완성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숫자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해당 숫자를 열심히 지우는 직원들의 집중력이 마치 공부하는 학생 못지않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싶을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빙고’를 외친다. 종이를 들고 우르르 나온 이들만 모두 일곱 명.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의 종이를 보여 주며 확인을 받고 나서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자 결국 일곱 명이 손 뒤집기 게임을 한다. 최

종승자 세 명을 겨우 추린 후에야 이들에게 상품이 주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잘 알려진 속담 속 글자를 마구잡이로 섞은 종이를 보여 주고, 이를 알맞게 완성해 말하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제법 많은 직원이 손을 번쩍 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정답을 외치는 목소리가 우렁차다. 문제가 적힌 종이를 들어올리기가 무섭게 정답자가 나왔고 가장 먼저 맞힌 세 명의 직원이 선물을 받았다.

끝으로 아쉽게 선물을 놓친 직원들을 위해 경품을 추첨하였다. ‘꽝’과 ‘당첨’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그런데 ‘꽝’을 골라도 표정은 마냥 밝기만 하다.

업무의 피로 잊게 한, 힐링의 시간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의 얼굴에 언뜻 아쉬움이 스친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즐기면서 보낸 시간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원들에게도 소중한 가을날의 추억이 되었으리라.

“상품을 타면 더 기쁘겠지만 꽝이 나와도 상관없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

집니다. 오늘 마음껏 웃고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합니다.”

조만기 교위의 말은, 이날 함께 한 전주교도소 교정공무원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리라.

잠시나마 업무의 피로를 싹 잊고, 동료와 함께한 힐링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니 준비한 이들의 입장에서도 뿐 듯한 하루였다. 이날 ‘교정은 행복을 신고’라는 말이, 직원들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으리라 믿으며 전주교도소에서의 알찬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볼링게임의 재미는 스트라이크? 하이파이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삼인방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끌거나 스페어를 처리하지 못해도 하이파이브는 계속된다. 볼링게임 이야기다. 어떤 이들은 볼링게임의 묘미가 스트라이크를 끌은 쾌감보다 동료들과 나누는 힘찬 하이파이브에 있다고 말한다. 실력과 결과를 떠나 모두를 칭찬해 주는 것이 하이파이브다. 팀워크를 다지는 것은 물론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문영민, 송인호, 하우현 교도가 나눈 하이파이브는 영화 같았다.



함께 초심을 새기는 동료들이 곧 가족

'20대 시절 하루 대부분을 시험공부에 투자하여 이룬 교정공무원이라는 꿈. 꿈을 이룬 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돋는다는 사명감을 얻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다. 근무 환경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로울 법도 한 생활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을 공유하고 초심을 되새기려 한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문영민, 송인호, 하우현 교도는 평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인 시간도 종종 함께 보내곤 한다. 그런데 큰 장벽이 하나 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위치한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는 문화생활을 할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늘 차로 1시간 거리인 안동까지 나가야 한다. 지금은 부서가 달라져서 만나는 시간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마음먹어도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 이들이 '영화 같은 하루'에 참여 신청을 한 이유다.

문영민, 송인호, 하우현 교도의 영화 같은 하루는 익숙한 도시인 안동에서 시작되었다.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오후 2시, 초밥뷔페 음식점에서 이들을 만났다. 점심을 먹지 않고 1시간을 달려온 터라 배가 고플 만도 하건만 직원들은 <교정>지를 흔들며 취재팀을 반긴다.

"참여를 앞두고 과월호를 살펴보았어요.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였더라면 훨씬 재미있을 텐데 아쉽네요. 인원은 적지만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잠시. 초밥뷔페 음식점에 들어서니 벌써 부터 눈이 즐겁다. 매장을 한 바퀴 돌며 초밥과 롤, 샐러드, 튀김류를 담다 보니 한 접시 가득이다. 직원들은 청춘답게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여러 번 샐러드바를 오갔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 아니랄까 봐 접시를 몇 번 비우고 나서야 이들의 얼굴에 활기가 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음료며 과일, 디저트



를 가져와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간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대화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테이블 위를 오가는 목소리가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장난스럽다.

“스포츠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기회예요”

배를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놀아 볼 차례다. 식사를 끝낸 직원들은 볼링게임을 하러 갈 생각에 들뜬 표정이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 각종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다. 가까운 선배, 동료들과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공과 함께 스트레스를 푼다. 스크린야구와 스크린골프, 축구, 축구까지 종목도 다양하다. 하우현 교도는 소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이정호 교도를 언급하였다. 이정호 교도는 이번 영화 같은 하루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나 바로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종목도 이정호 교도가 의견을 취합해서 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크린야구를 할까 생각했는데 다수결에 따라 볼링으로 종목을 바꾸었죠. 이정호 교도가 있었으면 2 대 2로 팀을 나누었을 거예요.”

서둘러 도착한 볼링장은 직원들의 기대감을 채우기에 충분하였다. 때마침 손님들이 모두 나가 볼링장이 텅 비었다. 볼링장을 전세 낸 듯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볼링공도 마음껏 골랐다. 문영민 교도는 볼링게임이 처음이란다.

“제 실력을 가늠할 수 없어 걱정했거든요. 볼링장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 편하네요. 못한다고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우리만의 리그’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문영민 교도는 힘이 잔뜩 들어간 어깨를 풀었다. 그리고 비장한 눈빛으로 팔을 몇 번 흔들고는 볼링공을 굴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레일 끝으로 향한 순간, “아!” 하는 탄성이 터졌다. 볼링공이 그만 거터로 빠지고 말았다.

“손목을 약간 비틀어서 해 보세요. 정면에서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친다는 생각으로요!”

볼링게임 경험이 가장 많은 송인호 교도는 문영민 교도의 손목을 살포시 잡고 비법을 전수한다. 두 번째 시도에서 문영민 교도가 손목 방향을 살짝 바꾸자 핀이 제법 많이 쓰리쳤다. 실수를 만회한 그를 응원이라도 하듯 송인호 교도와 하우현 교도는 바로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한다. 다음 차례인 하우현 교도도 1·2차 시도에서 높은 점수를 내지 못하였다. 그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요”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하우현 교도의 능청스러운 넉살에 볼링장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의 모습을 온전히 포용해 주는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실력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송인호 교도는 동료들의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결심으로 볼링공을 굴렸다. 부드러운 스냅과 안정된 자세. ‘스트라이크’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하루의 대미를 장식하다

송인호 교도가 스트라이크를 터트리자 다른 두 명의 동료들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다. 점수가 중요한가.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지지자이자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송인호 교도에게 볼링게임은 매력적이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쾌감도 좋지만 하이파이브하면서 친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볼링게임을 즐겨요.”

게임을 진행할수록 직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이다. ‘청출어람청어람(青出於藍青於藍)’이라 했던가. 송인호 교도의 집중코치를 받은 문영민 교도가 스트라이크를 터트렸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문영민 교도는 얼떨떨한 표정이다. 그러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은 숨길 수 없었다. 초보라도 조금만 배우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게 볼링게임의 재미 아니던가. 스트라이크의 감을 맛본(?) 문영민 교도의 손놀림에 자신감이 붙었다.

하우현 교도도 이에 질세라 심기일전한다.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스트라이크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스페어 처리만큼은 문제없다. 마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내보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수용자들의 첫인상보다 참회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미래의 모습을 믿는 교도관들 말이다.

그런데 하우현 교도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한마디가 들려왔다.

“스트라이크 쳐 주세요!”

바로 취재팀의 외침이었다.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는 상황. 하우현 교도는 취재팀에게 본 실력을 보여 주겠다며 진지하게 볼링공을 손에 쥐었다. 볼링공이 하우현 교도의 손을 떠나 매끄러운 레일 위를 빠르게 굴러갔다. 그리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핀을 모두 쓰리뜨렸다. 스트라이크였다.

“와, 정말 영화 같아요!”

문영민 교도와 송인호 교도는 놀라운 결과에 소리를 질렀다. 이 장면이 만약 영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다면 너무 뻔하고 진부한 전개라는 평을 들었으리라. 하우현 교도가 의식맞게 실력을 숨긴 것뿐이라며 으쓱거리자 동료들은 “실력을 너

무 숨긴 것 아니냐”며 웃는다. 정말로 극적인 연출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는지는 몰라도 하우현 교도 덕분에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다. 그들을 다시 한번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치며 축하를 보낸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동료들과 시간을 함께한 세 사람은 교도관으로서 첫 마음가짐을 돌아본다. 즐거움은 언제나 활력을 가져다주기 마련이니,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오늘을 꺠내 보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아버지 같이 푸근한 선배들에게 오늘 같은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한다.

“볼링게임에 집중하면 거짓말처럼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걱정 없이 마음껏 쉬는 시간은 선배들에게 더욱 필요하잖아요.” 교도관이 된 지 1년 남짓한 세 사람은 조언과 노하우를 아낌 없이 전달하는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청송으로 돌아가는 길, 교도관들의 마음속에는 선배들 생각이 기득하다.

**월간 (고정)이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은 독자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고, 가고 싶었던 장소에 방문하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을 잃은 당신에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입사 후 1년, 3년, 5년 차에 사춘기를 겪는다는 말이 있다. 출수년도에 찾아오는 사춘기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무기력과 매너리즘 때문이다. 이때쯤이면 입사 당시의 포부를 잊어버리고 치솟는 퇴사 욕구를 삼키느라 힘겹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회사이건만 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매너리즘을 이겨 내는 방법을 전수한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전환이 필요할 때

A씨는 올해로 입사 3년 차가 된 직장인입니다. A씨에게 첫 출근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실수를 연발해 혼이 날기 일쑤였고,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허드렛일만 이어져 보람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3년은 버텨야 한다”고 조언해 주어서 여태 꾋꿋하게 참았는데, 3년 차가 된 지금은 무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허망감이 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40분 언저리에 출근하며 짐깐의 쉴 틈도 없이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해야 할 때면 지루

하고 무료한 기분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특별한 일 없이, 다시 내일 출근을 준비합니다. 매일 하는 업무도 달라진 게 없어 나 자신이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 색다른 것에 도전해 보려 해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퇴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직장인은 A씨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직장인의 약 75%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답할 정도이니까요. 매너리즘은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에 젖은 상태를 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늘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



이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딴짓’은 매너리즘의 탈출구가 됩니다. 평소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면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서초 단추를 꿰매거나 잠깐 책상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을 환기하기 위해 근교로 여행을 다녀와도 좋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이벤트가 되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지워 줍니다. 기자 출신의 강수정 작가는『딴짓』이라는 책을 통해 일탈과 딴짓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흔들어 깨우는 매개라고 말합니다. 즉 딴짓이 쓸데없거나 성과 없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아도 좋고, 낯선 가게를 찾아 소액으로 충동구매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래 목표를 정하고 매일 다른 하루 구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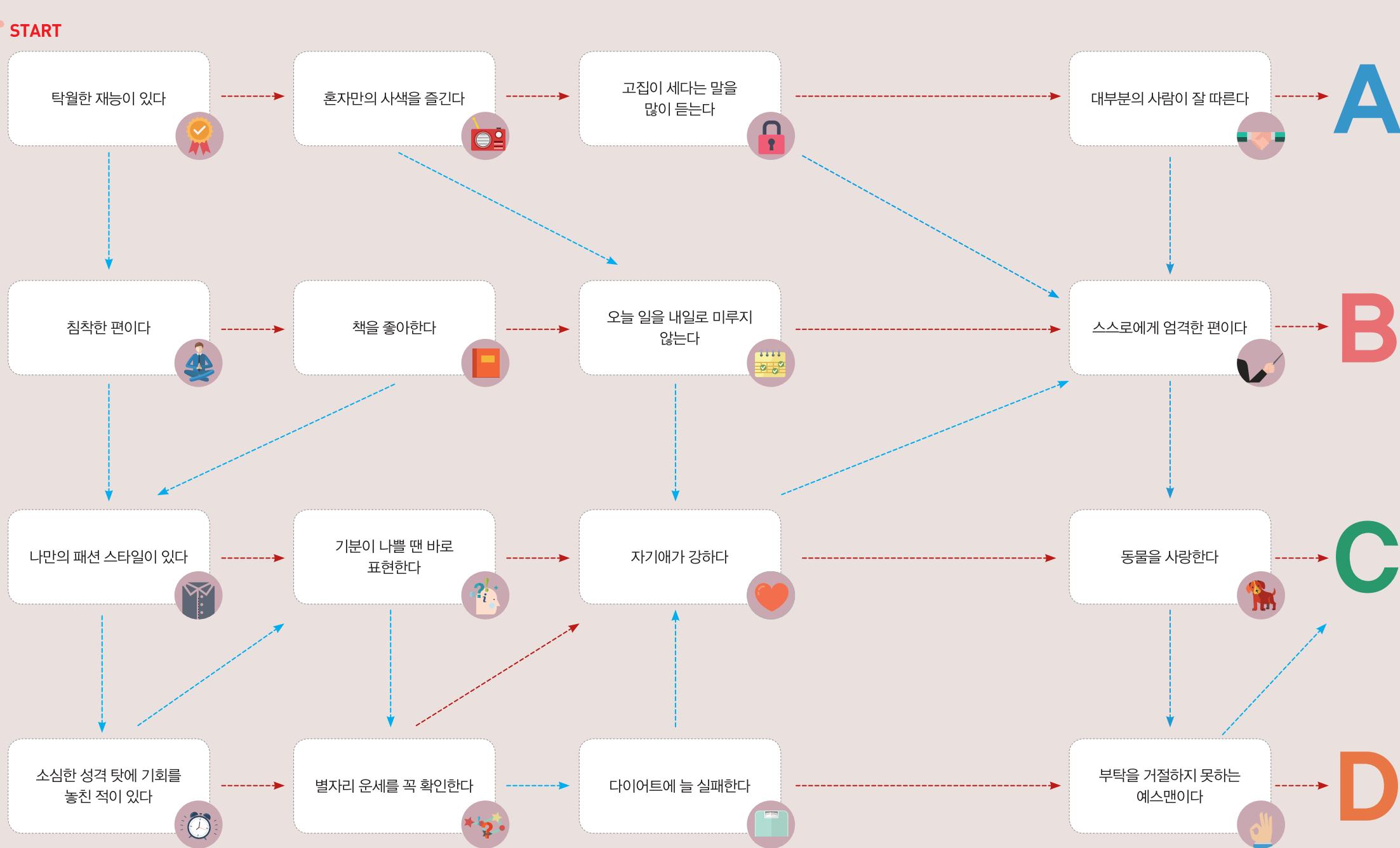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알려진 위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 일을 하는지 잊게 됩니다. 미래의 나침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 보세요.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지, 무슨 꿈을 이루고 싶은지 말입니다. 즉 1년, 3년, 5년,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표가 결혼이나 승진이 되기도 하겠지요. 비전을 정한 다음 실천하여 성취감을 얻을 때 무기력한 일상에 작은 활력이 생깁니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성취한다면 눈에 생기가 돌 것입니다.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매너리즘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 말고 퇴근 후 잠깐이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 보세요. 어젯밤 자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오늘은 버스를 타고 보지 못했던 바깥 풍경을 바라보세요. 또 취향이 아닌 음악을 들어 보거나 쓰지 않던 일기를 적고, 갑자기 약속을 잡아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낯선 느낌에 조금은 활력이 돋립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하루하루 다른 저녁을 보내는 게 매너리즘 극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얼마나 견고한가요?

→ YES
→ NO

우리의 삶은 마라톤 경기와 닮았다. 스타트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단거리 육상과 달리 마라톤은 뒷심이 중요하다. 끈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뒷심을 발휘해야 할 때, 긴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단단히 다진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음의 중심에 세운 기둥은 내 삶의 지원군이 된다. 내 중심은 얼마나 견고할까?

참고서적 〈어른의 공식〉(장엔, 불광출판사), 〈잘되는 기술〉(박요한, 청출판)



견고한 사람 (A)

똑심으로 상대방을 품어 주는 주관형
당신은 견고한 뚜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올곧은 신념을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주관이 뚜렷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반복적으로 전하며 오해를 풀어 갑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을 수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당신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호감형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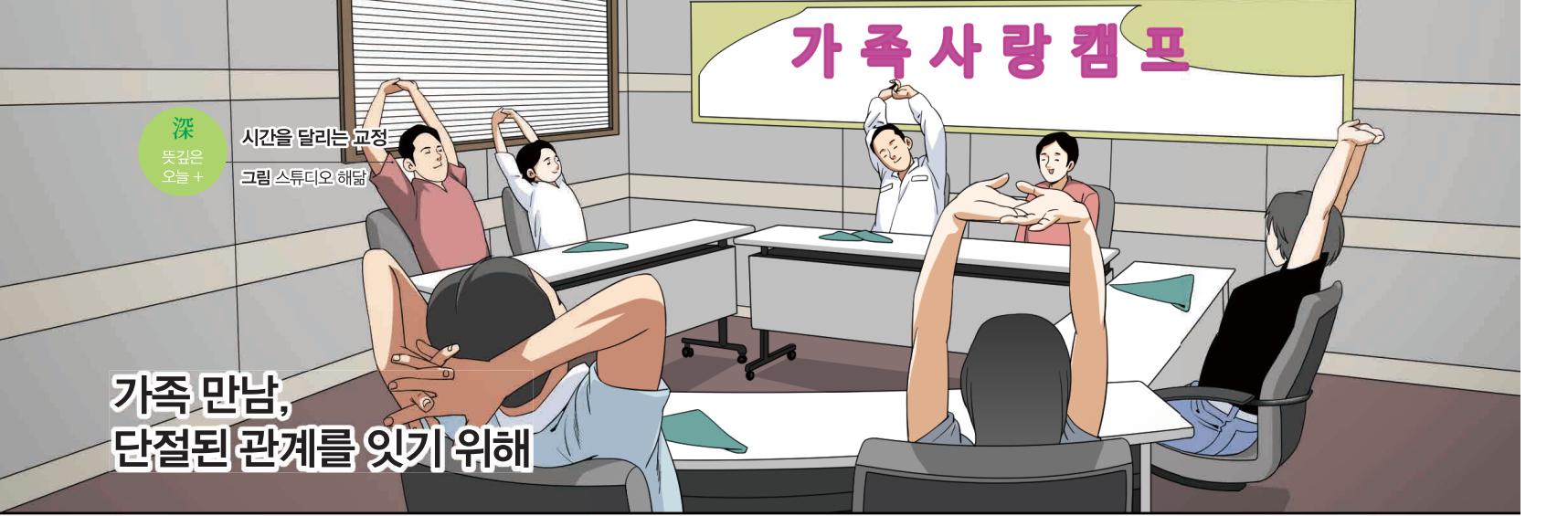
작은 빈틈은 함께 채우는 호감형
당신은 수십 번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완벽한 듯하지만 어딘가 부족해 챙겨 주고 싶은 사람에 가깝겠네요. 마음에 빈틈이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야 상대방과 함께하며 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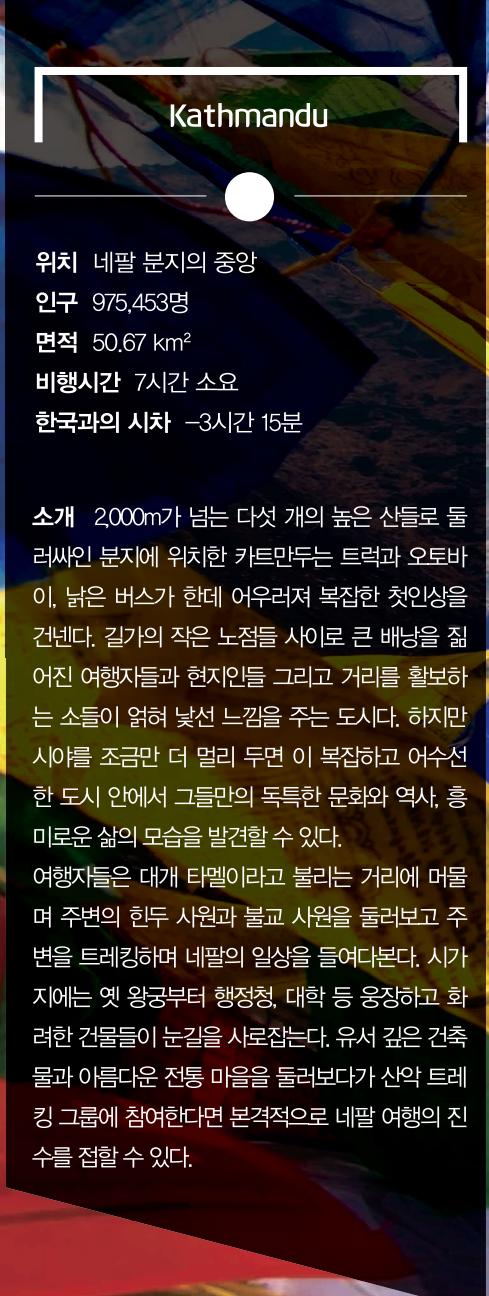
솔직형 (C)

자유분방하지만 남다른 소신도 엿보이는 솔직형
당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음 가는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될지 모르죠. 자유롭고 솔직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당황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소신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높아 상대방이 편하게 말하게 되죠.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당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면 내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D)

아직 스스로의 가능성을 눈치 못 챈 소심형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느라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는 않나요? 당신은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평소 용기 없고 주눅 든 모습도 보입니다. 우선 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세요.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말하기를 연습하면 나의 중심이 바로 설 것입니다. 나를 더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법, 어렵지 않아요.





성큼성큼 히말라야를 향해 한 걸음 네팔 + 운전과 관련한 영어 표현

Kathmandu



더르바르 광장

옛 카트만두 왕국의 중심 광장인 더르바르는 ‘왕궁’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옛 왕궁을 비롯하여 독특한 구조의 수많은 사원을 만날 수 있다. 카트만두 분지의 원주민 네와르족이 꽃피운 건축과 장식예술은 미술사에서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광장 부근에 있는 마주 데발 사원은 외형은 불교 사원에 가깝지만 시바신을 모시는 힌두 사원으로, 절은이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관광객들의 조망명소로 유명하다.



파슈파티나트 사원

네팔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파슈파티나트에서 ‘파슈’는 생명체, ‘파티’는 존엄한 존재를 뜻하며 1년에 50개가 넘는 힌두교 축제가 열려 불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윤회 사상을 믿는 힌두교도들이 이 곳에서 화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그마티 강둑의 화장터 ‘가트(Ghat)’에서는 가족의 사신을 태우며 슬퍼하는 네팔 사람들의 일상과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보우다나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양 최대의 탑을 지닌 곳으로 유명하다. 이 탑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팔 사람들은 탑 안에 부처의 사리가 있다고 믿는다. 많은 티베트인이 이곳으로 이주해 마을을 이루고 있어 오전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티베트인들과 불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탑 주변을 도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불탑의 야경이 네팔의 모습과 잘 어우러져 신비한 느낌을 준다.



스와얌부나트 사원

네팔의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정상까지 3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상에 오르면 카트만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와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원 일대가 야생 원숭이의 집단 서식지라 원숭이 사원 (Monkey Temple)으로 불리는 만큼 귀여운 원숭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타멜 거리

타멜 거리는 카트만두 최고의 번화가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네팔을 찾은 대부분의 여행자가 히말라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한 번은 들르는 여행자의 거리다. 자동차 운행이 금지된 타멜 거리는 다닥다닥 붙은 작은 상점들과 좁은 길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거리를 ‘릭샤’로 누비다 보면 어느새 그만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어선 초크

네팔의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시장 근처에는 인도 사람들과 티베트 사람들이 두루 마을을 이루고 있어 대략 50여 종족의 풍습을 엿볼 수 있다. 흥정만 잘하면 같은 물품이라도 타멜 거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곳을 지나면 5분 거리에 더르바르 광장이 나타나 걸어 다니기에도 좋다.

🚗 영어회화 표현

운전과 관련한 영어 표현

I would like to rent a car.

차를 빌리고 싶어요.

For three days. How much does it cost a day?

사흘 동안 쓸 거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This is my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국제 운전 면허증입니다.

The traffic is really bad.

길이 막히네요.

Could I get a ride?

태워 주시겠어요?

I'm a new driver.

저는 초보 운전자예요.

Can we stop for gas on the way?

가다가 주유소에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Put on your seat belt.

안전벨트를 매세요.

Could you open the windows?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Pull over.

차 세워 주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driving?

운전한 지 얼마나 돼요?

How much is it to park here for an hour?

시간당 주차료가 얼마예요?

Could you come and pick me up?

태우러 와 줄래요?

킬링 포인트(킬포) & 넵만 연발하는 사람(넵무새)

신조어 ‘킬포’와 ‘넵무새’ 알아보기



용어 해석

‘킬링 포인트(Killing Point)’의 줄임말로, 해당하는 이야 기나 어떤 일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한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로는 ‘킬링 파트’가 있는데,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킬링 포인트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Killing Point’라고 하니까 마치 영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 확한 표현은 아니다. 다만 ‘Kill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중요한 요점이 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문가 용어 진단

넘쳐나는 많은 영상과 정보 속에서 현대인들은 압축하기를 즐긴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누구나 화 꽂히는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를 바탕으로 두 시간짜리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줄이거나 영화 캐릭터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압축하느냐에 달렸다. 누군가는 뛰어난 영상미를 꼽고 또 다른 이는 심금을 울린 명대사에 주목한다. 영화 <기생충>의 킬포만 해도 “다송이의 자화상”부터 “냄새” “복숭아” “박서 준”까지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이처럼 영화에서 ‘킬포’는 결과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킬포’는 여려 방면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이 나왔을 때, 사진에 멤버별 특징을 짚어 주거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무의 포인트를 전달해 준다면 훨씬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신상품이나 신간 소개, 미디어 할 것 없이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인지되는 ‘킬포’를 갖추었느냐 여부가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핵심과 통찰력을 두루 갖춘 ‘킬포’가 통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시간문제일 테니 말이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하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용어 해석

“넵”이라는 대답과 앵무새의 합성어로 어떤 질문에도 마치 입력해 놓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넵”을 연발하는 사람을 뜻한다. 학생들에게 급식체가 있다면 직장인에게는 ‘넵병’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몸에 배면 넵무새로 발전한다. 이는 주체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바를 의미하며, 주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에 많이 분포한다. 또한 넵무새들은 힘이 들어간 대답과는 달리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용어 진단

사회 초년생부터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을 거치기까지 모든 직장인의 애환이 “넵”이라는 대답에 담겨 있다. 일 처리에 앞서 그 일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대답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를 경험했다면 ‘넵무새’일 가능성이 크다. 넵무새가 되기까지 크게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그中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다. 몇 번의 개선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건의해도 통하지 않을 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는 넵무새로 변화한다. 굳이 애쓰며 좌절하느니 아예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이라니한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부하직원이 상사의 입장에서는 군말 없이 씩씩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보고서 안을 확정지을 때나 결재를 올릴 때, 심지어 점심 메뉴를 정하는 데에서도 넵무새가 활동한다. 어떤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생겨도, 그저 “넵”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동에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 차라리 수긍해 버리는 직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넵”에서 출발해 느낌표와 물결, 물음표와 웃음 표시까지 그 안에서도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며 다양하게 변모하는 넵무새는 현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10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며,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리핀, 수용자 간 난투극 과밀수용으로 인한 잠자리 다툼이 원인

필리핀의 마닐라교도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여 최소 2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였다.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는 과밀수용 문제 때문이었다. 마닐라교도소에는 11사동과 12사동에 서로 다른 두 폭력조직에 속한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건은 다른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수용자 2명이 취침할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이 싸움에 두 폭력조직에 속한 다른 수용자가 가세하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도소에는 정원의 3배 이상인 5,350명이 수용되어 있다. 특히 11사동과 12사동은 정원이 200명이지만, 조직 폭력 수용자 8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 당국은 이러한 과밀수용이 수용자들의 폭력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수용자 사회 복귀 돋는 넓고 쾌적한 교정시설 눈길

영국이 교정시설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웨일즈시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축하였다. 새로 건축된 교도소는 HM웰링버러교도소로,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로 평범한 사무공간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 또 수용자들이 자녀들과 자유롭게 저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놓았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교도소 시설은 열악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천장도 낮았다. 또 한 방에 많은 수용자가 밀집되어 있었다.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이 수용자의 폭력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여 HM웰링버러교도소를 짓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영국은 전형적인 교도소의 모습을 탈피한 이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 동료들과 생일 파티하는 수용자 반성 없는 모습에 네트즌 충격

인도의 언론사 인디아투데이가 교도소 내에서 해맑은 미소로 생일파티를 연 수용자의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였다. 영상 속에는 생일을 맞은 핀투타와리라는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가 준비한 케이크와 선물을 받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생일 파티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인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핀투타와리가 2015년 인도 다르방가에서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도 시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네트즌들은 “이 영상을 보는 유가족의 심정은 어떻겠냐” “애초에 교도소에 휴대전화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도소의 책임자 미탈레쉬 미쉬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도소 내 휴대전화 반입은 명백한 금지사항”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도소 독방에서 홀로 출산 여성 수용자 관계 당국 고소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중인 다이애나 산체스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하였다. 그는 출산 도중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덴버시와 교도소, 보건소 등 관계 당국을 고소하였다. 다이애나 산체스는 지난해 7월 신원 도용 혐의로 수용되었으며, 당시 임신 8개월이었다. 그는 교도소 입소 시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직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도 다이애나 산체스가 독방에서 홀로 출산하는 장면을 담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교도소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산체스를 포함하여 수용 중인 임산부들은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이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신한 수용자들을 언제든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교정공무원이 전한 행복한 에너지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렘이 넘치지만, 수용자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쓸쓸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온기가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연휴를 준비하였다. 덕분에 수용자들도,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도 훈훈함이 더해진 명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상주교도소



통영구치소

나눔의 열기 가득한 현장 속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초,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기대에 부푼 사람들 사이로 교정공무원들은 이웃사랑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있지만,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못지않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자 마음을 쓴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비롯한 마을회관, 노인요양시설, 소외된 가정에 있는 분들이 든든하게 명절을 度 수 있도록 곳곳에서 교정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보태졌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성금과 물품 지원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교정시설은 해당 지역사회를 꼼꼼히 살피며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온 교정시설의 나눔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경북부부제2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광주교도소, 포항교도소 등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소외된 가정과 결연 관계를 맺어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동시에 학생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쳐 가고 있다. 장학금 지원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은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전달해 왔다. 구지서 광주교도소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자길 바란다면 행사 소감을 밝혔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모든 분이 행복하고 온기 넘치는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은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양로원 및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돋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원주교도소도 전 직원들이

이 기꺼이 성금을 모았다. 이들의 활동이 특별했던 점은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집’과 더불어 ‘노숙인 쉼터’에도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다. 소외된 이웃들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홀로서기와 버거운 노숙인을 편견 없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원주교도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안나의집 장혜영 원장은 교정공무원들의 편견 없는 시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가는 인심 속에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에 적극 앞장서는 따뜻한 봉사단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도 교정공무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틈틈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비롯하여 수원구치소와 순천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돌보았다. 이 운동을 통해 지역민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하였다.

한편, 각 교정시설의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봉사단체도 그 역할에 걸맞게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들 봉사단이 있어 지역사회와 복지시설들도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교도소 봉사단체인 ‘한나교정봉사회’는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결혼이주여성가정 3곳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봉사회는 평소에도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대상 가정 자녀들의 학업 상담을 하며 베풀고 되어 주고 있다. 이 3곳의 가정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 3곳과 사랑의 손잡기 가정에 위문금을 건넸다.

상주교도소 160여 명의 직원들로 결성된 ‘달팽이 봉사단’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도 이웃 사랑에 앞장서 온 봉사단은 이번에도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박경선 상주교도소장은 “작은 정성과 노력이지만 명절을 맞아 마을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봉사단에 속한 교정공무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교정공무원들은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평상시에도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기에, 이들을 맞이하는 이웃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하였다. 다른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을 찾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평소 독거노인에게 아들과 딸처럼 친근하게 다가가 말벗이 되어 주는 것도, 아직까지 연탄으로 난방을 이어가는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교정공무원들이다. 교정공무원들은 이웃사랑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이웃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에 페인트칠을 하기도 한다. 해남교도소가 추



김천노인요양원
김천소년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석 연휴 직전에 인근의 해남군 옥천면 영안마을을 방문하여 전기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말이다. 추석을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한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활동은 저마다 각양각색이었지만,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은 동일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은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우리 이웃을 돋는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성실한 움직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교정공무원의 바지런함은 그 온기를 유지할 것이다.

제39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6박 8일간 국가별 교정 현안 논의

28개국 150여 명 참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교정행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용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의견을 모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한다.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는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세계 각국의 교정 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 회의를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행정 관련 세계 각국 공통 관심사 논의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9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에 참가하였다. 198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원국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총 32개국이다. 이번에는 캐나다, 홍콩 등 28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986년 제7차 회의, 2005년 제25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1년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도 진행되었다.

약물남용 및 정신질환 수용자 의제 발표

22일 관리이사회 회의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개회식과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체회의에서 참가 회원국은 2018~2019년 교정 분야 주요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다음날인 24일에는 4가지 의

제를 주제로 소그룹 회의가 진행되었다. 4가지 의제는

▲효율적인 교정시설 운영, 수형자 교정교화, 지역사회 내 범죄자 감독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약물 남용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교정교화, ▲비구금 선고와 가석방, ▲소년 및 청년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교정교화 등이었다. 한국은 약물 남용 및 정신 질환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교정교화에 대해 발표하여 많은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국의 대표들은 4가지 의제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교정행정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국 대표들이 모든 의제 발표를 마친 다음에는 차년도 의제 결정 회의가 진행되었다. 25일에는 몽골의 409교도소를 다 함께 방문하여 몽골의 교정행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의 교정 대표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교정행정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의 내용을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접목시켜 과밀수용 해소와 재범률 감소,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정공무원 30년, 교정학 교수 3년

나이 서른에 교도관이 되다

대학 졸업 후 20대를 고시공부로 다 보낸 데다 직장도 없이 결혼한 상태에서 서른 살을 맞이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서 시험공부를 계속하였지만 아기까지 태어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교정직 7급을 택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며 인간의 범죄와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범죄자 교정교화를 목표로 하는 교정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 보겠다는 약간의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986년 여름에 교정직 7급 시험에 합격하였고, 1987년 4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그해 5월 안양교도소 교위로 발령을 받아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80년대 교도소 상황

제가 첫 발령을 받은 1987년은 전두환 정부 말기로, 연일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일어나 교도소마다 시국사범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10월에는 영등포교도소 집단도주 사건이 발생하여 교정현장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안양교도소도 매일 저녁식사 후 시국사범들이 창가에 서서 식기로 철 격자를 긁어 대면서 구호를 외치고 다른 수용자들도 동조하는 등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용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소통하고자 수시로 상담을 하는 등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던 날, 제가 감독하고 있던 징벌사동에서 운동시간에 수용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자해를 하는 등 난동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일로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고 후 보안과에서 서무과(지금의 총무과)로 이동하게 되었고 서무주임을

2016년 12월 말 안양교도소장을 끝으로 교정현장을 떠난 지도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1987년에 교위로 출발하여 30년간을 교도관으로 지냈고, 퇴직 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정학(矯正學)을 가르치고 있으니 33년째 '교정인'으로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교도관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부끄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쑨살같이 달려 온 시간 속에서 주요 장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담당하면서 행정업무도 많이 익히게 되었습니다. 서무과로 종종 찾아와서 항의하던 시국사범 가족들과 대화했던 일,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신 소장님을 위해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느라 딸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의 3년은 수용자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한편, 유약했던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부 교정국으로 발령받다

1990년 7월, 안양교도소 서무과에서 법무부 교정과(지금의 교정기획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부에서 처음 맡은 업무는 교정과 서무로서,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하여 일선기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하고, 또 일간신문에 게재된 교정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 및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한번은 큰 수해가 발생하여 전국 교정기관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당시 총무과에서 아침에 장관님 보고를 위해 교정국 종합상황을 빨리 알려 달라고 하여 윗분들께 보고하지 않고 숫자를 전해주었다가 엄청나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교정과 서무에 이어 조사연구계로 자리를 옮겨서는 교정지 편집, 법규 개정, 영어자료 번역 등을 하였습니다. 교정지 편집을 위하여 원고 청탁과 수집은 물론 글의 내용까지 꼼꼼히 살피었고, 화보 사진도 직접 찍어 인화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에 문외한이라 교정국 행사의 중요한 장면이 누락되거나 사진 구도가 잘못되면 대단히 난감하곤 했습니다.

1991년 11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4개 지방교정청의 출범에 따라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영등포구치소(현 서울남부구치소)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4개월간의 본부 근무를 통해 전국 교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 교정행정 전체

를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유나페이 연수, 행형법 개정작업, 미국 유학길에 오르다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정부에서 어학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치소에 배치된 후 LATT(영어평가) 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유엔아시아극동범죄연수소(UNAFEI)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연수소는 유엔 산하 연수소로서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교도관,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꼭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영등포구치소에서 당직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보안야근 1부 당직을 맡아서 70여 명의 직원들에게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직원 애경사에 적극 참석하는 것은 물론 생일 축하와 우수 직원 선물 증정, 야유회 등을 통하여 소통을 도모하였는데, 당시 김광웅 보안과장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92년 구로체육공원에서 열렸던 전 직원 가을체육대회에서 우리 1부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3년 5월경 '행형법개정 기획단'에 선발되어 영등포구치소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교정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행형법 제5차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수용자 정벌규정 중 감식별 삭제, 변호인 접견 시 청취 금지, 미결수용자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를 공부하여 1994년도 유학 선발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토플(TOEFL) 점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안양에서 첫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새벽반 수업을 듣고 사당동 포장마차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운 후 과천으로 출근하기를 수개월 계속 한 끝에 커트라인을 겨우 면한 점수(560점)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95년 8월에 미국에 도착하여 혼자 사파리(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이 위치한 헌츠빌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인데 당시 교정

시설이 7개나 있었으며, 텍사스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주도(州都)인 오스틴에 있었지만 교정본부는 헌츠빌에 있을 정도로 교정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교정타운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기간 동안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셔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남아 힘든 생활을 하였고, 저도 혼자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2년 과정을 마친 1997년 5월,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후에 제 석사논문이 미국의 교도소 잡지(Prison Journal)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공공부문혁신대회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발족에 대응하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는 영어와 관련한 국제 업무에 열중하였습니다.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중국 감옥관리국과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졌고, 동남아 국가의 교정대표단 초청, 교정직원 장단기 해외 시찰 지원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아태교정국장회의에 참석하여 외국 교정공무원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1999년 3월, 본부 교정과 조사연구 사무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개최한 2001년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교정국이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전국 교정시설의 화장실 개선, 거실 내 TV 설치, 수용자 전화 허용, 외부 통근작업 활성화 등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당국의 노력을 '열린 교정'이라는 모토하에 PPT로 제작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전체 공공기관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001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에서 교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사항을 요구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수용자의 서면진정과 구두진정은 물론 24시간 전화 및 팩스 사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본래 2001년 7월 발족 예정이었지만 교정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11월까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준비단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를 거친 끝에 가장 논점이 되었던 24시간 전화 및 팩스 사용을 진정함 설치로 대체하고, 11월에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정시설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여 수용자 진정 철차,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진정함 설치, 인권위원 방문 시 대응 요령 등을 정리하여 지침을 만들었

고, 전국 보안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시행에 대비한 필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수용자 진정이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일선기관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교정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눈을 혹사한 탓에 망막에 손상이 와서 시력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라크 복구지원에 정부대표로 참여하다

본부 교정과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2003년에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이라크를 함락시켰는데 얼마 후 우리 외교부에서 이라크 복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교정,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하여 교도관으로서 세계사의 현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출입국관리국, 산업자원부, 국토관리부에서 1명씩 총 4명이 최종 선발되어 2003년 7월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등 40여 개 연합국으로 구성된 이라크복구지원단에 소속되어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후세인 대통령궁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후세인 궁은 타원형의 웅장한 건축물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건물 전체가 대리석이고 화장실의 수도꼭지도 금으로 도색되어 있을 만큼 휘황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교정시설을 복구하고, 새로운 교정관계법령을 제정하며, 교정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정시설 복구팀은 저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파견된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각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상호 간 소통은 물론 모든 문서도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우리 팀에 여러 명의 이라크 통역관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제공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라크 전역에 있는 교정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매주 두 번 정도는 이라크 경찰연수소에서 신입 이라크 교도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주로 한국의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 피구금자 처우 국제준칙 등을 소개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집행과 교정교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장소로 사용되었던 경찰연수소는 폭격으로 건물들이 많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점심식사는 식당도 없이 일회용 접시에 담아 주는 음식

을 이라크 연수생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저도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본래 이라크 지원 기간은 1년을 예정하였는데, 반군 테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후세인 궁도 폭격을 당하는 등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저희가 투숙하던 알라시드 호텔도 폭격을 당하여 미군 장교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숙소를 미군부대 막사로 옮겨 셔틀버스로 후세인 궁에 출근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테러 공격을 받을지 몰라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 체류 6개월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4년 1월,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중동 지역과 이슬람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태교정국장회의 주관, 그리고 소장으로 발령되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후 청송제2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25개국 교정행정 총수들의 연례 회의인 아태교정국장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6개월 동안 영어로 생활했던 경험이 국제회의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말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1월부터 김태규 서기관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발족하여 빈틈없이 준비와 진행을 한 덕분에 참가한 대표단들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교정기획단장과 수원구치소 부소장 등을 거쳐 2008년 10월 경주교도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1987년에 교위로 출발해서 21년 만에 교도소장이 된 것입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들과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2012년 폐지) 그리고 교정위원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야 할 뿐더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진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7개 교도소의 소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저의 모교인 배재고등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섭기라”는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섭기는 자세로 근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소장으로서 항상 중시했던 것은 수용자들의 의식주였습니다. 특히 식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수용거실 도배, 화장

실 보수 등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수용자 의류, 침구류와 여러 생필품이 규정대로 지급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로마의 법언(法諺)이기도 한 “그의 것을 그에게로”가 실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기본 업무에 충실했 때 수용자의 신뢰를 얻고, 수용자가 교도소와 직원을 신뢰할 때 진정한 교정교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약 8년 동안 경주, 안동, 청송제3, 여주, 서울남부, 경북북부제1, 안양 등 7개 교도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교회당 전면보수, 거실난방 설치, 건전가요집 제작 배부 등을 한 일, 청송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자 문화체육 시설을 마련한 일, 여주교도소에서 수용자 중창단을 구성한 일, 서울남부 및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 감사운동을 펼친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정공무원 퇴임, 백석대학교 교정학 교수가 되다

2016년 12월, 안양교도소 강당에서 열린 소장 퇴임식 날, 가족, 친지, 직원들과 교정위원들의 축하 속에서 교정공무원 30년 세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7급 주임으로 출발하여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안양교도소에서 소장으로 퇴임하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소장 답사 때 “이 교도소의 소장실과 바로 밑에 있는 총무과 간의 높이가 1m 거리인데, 제가 총무과 주임에서 1m를 올라오는 데 30년이 걸렸다”라고 소회를 말하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퇴임식 후 청사 앞에 모인 직원들과 약수를 나누고 축하를 받으며 안양교도소 정문을 떠났습니다.

교정공무원 퇴임 후에는 백석대학교 교정보호학과(현재 교정보안학과) 교수로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퇴임을 목전에 둔 2016년 10월, 백석대학교에서 신설되는 교정보호학과 교수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지원 요건 중 박사학위 외에 ‘교정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이 있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하여 면접 시험 때,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더라도 교수로 올 수 있겠

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포기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고 2017년 1학기 초빙교수를 거쳐 2학기에 교정보호학과 주임교수(학과장)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백석대학교 교정보호학과는 경찰학부에 속해 있는데, 2017년 신설된 첫 해에는 경찰학부 150명 중 교정보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7명이었고, 2018년에는 9명 그리고 올해에는 14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때때로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교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교정 특강, 교도소 견학 등을 통하여 교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학생이 전과를 함으로써 현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이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교정학과를 선택한 이 귀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정에 관한 국가자격증도 없고, 교정직 시험 시 가산점도 없으며, 최근에는 교정직 특채도 없으니 신설 학과를 운영하는 데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교정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가 교정보안학과에 합격할 경우 4년 동안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한다는 교정장학금을 마련했지만 아직 해당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교정학과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가 교정행정 분야에서 산학 협력을 이루어 교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필수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 친구, 친지 및 동료·선후배 등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 은덕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 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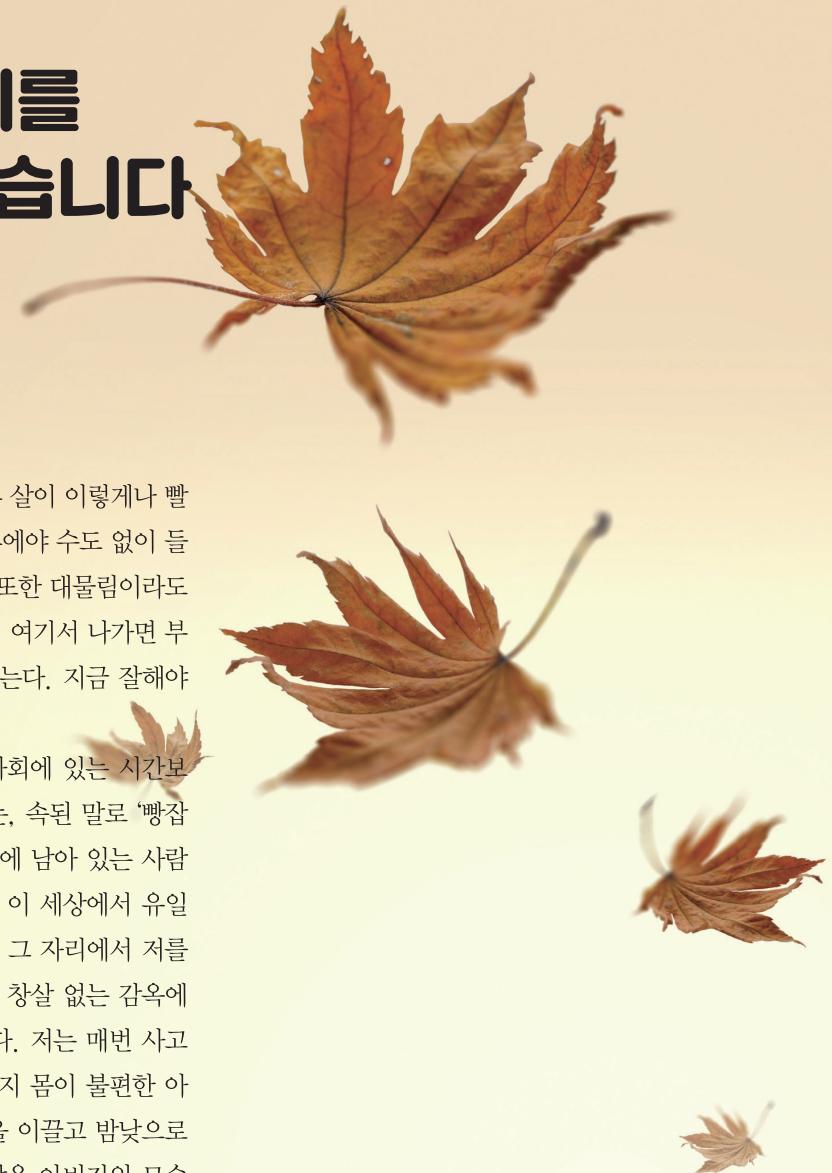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너도 조금 있으면 금방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이 말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마흔 살이 이렇게나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재 마흔이라는 나이 앞에 서게 된 후에야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대물림이라도 하듯이 다른 동료에게 “너도 조금 있으면 금방 서른 되고 마흔이 된다. 여기서 나가면 부모님께 정말로 잘해야 한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효도하려면 그땐 늦는다. 지금 잘해야 한다” 하며 뼈아픈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년수 때부터 지금까지 교도소 문턱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며 사회에 있는 시간보다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징역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속된 말로 ‘뺑잡이’입니다. 징역을 밥 먹듯이 하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다 보니 제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분, 아버지는 못난 자식에 대한 연을 끊지 못하고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당신의 잘못이라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저 대신 벌을 받으셨던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에서야 해아려 봅니다. 저는 매번 사고를 저질러 놓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고, 그 뒷수습은 오로지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 맡겨 놓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자식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벌을 받았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교정 희망의 백일장 Ⅱ’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른을 지나 마흔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느새 많이 쇠약해지고 몸도 마르셨습니다. 병원에 가 보자며 몇 번이나 성화를 했지만 병원 갈 돈 있으면 차라리 당신에게 달라고 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돈을 모아 손주들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주고 싶으셨던가 봅니다.

어느 깊은 밤, 아버지께서 홀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우셨던 것인지요. 얼마나 외롭고 어머니가 그리웠으면 저렇게까지 슬프게 우시는 걸까?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 저렇게 서글피 우실까?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식들 몰래 병원에 다녀온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냥 집으로 오셨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어머니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게, 고단하지 않게,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아버지를 보내 드렸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는 신보다 위대하고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자식을 위해 보여 주었던 사랑과 은혜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편이 되어 주신 아버지, 당신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제 꿈에 다녀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교정기관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下)*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2.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표 4〉는 회귀분석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각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가장 높은 수치가 .280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가정 중 하나인,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회귀분석결과

〈표 5〉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FEVS 설문에 응답한 교정국 공무원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모형의 F값은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었다. 각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자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04-002)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2019년 〈교정〉 이번 호에 실린 글은 2019년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제83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제1저자.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6. 2.) 심사일(2019. 6. 20.) 수정일(2019. 6. 24.) 게재확정일(2019. 6. 26.)

〈표 4〉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업무노력	직무만족	관리직	성별	연령	근속년수	대체근무	건강보조
업무노력	4.436	.655								
직무만족	3.696	.941	.446**							
관리직	.224	.417	.092**	.140**						
성별	.315	.465	.083**	.042**	-.067**					
연령	2.045	.883	-.025**	.024**	.132**	.000				
근속년수	2.237	.768	-.074**	-.011	.232**	-.037**	.623**			
대체근무	.268	.471	.035**	.044**	-.119**	.045**	.009	.034**		
건강보조	.569	.721	.078**	.105**	.045**	.042**	.014	.046**	.186**	
가족돌봄	.049	.279	.036**	.083**	.015	-.011	-.022*	-.007	.190**	.280**

**p<.01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근속년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남성보다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중심이 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자면, 대체근무 프로그램(Telework & AWS)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은 비참여자에 비하여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 프로그램(HWP & EAP)의 경우 참여자들이 비참여자에 비하여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CCP & ECP)의 경우 업무노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은 연령별로 세분화된 표본을 바탕으로 동일한 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령별로 프로그램의 효

과를 살펴보았다. 40대 이하, 40대, 50대의 세 표본에서는 주어진 모형이 종속변수들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60대의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논의해 보면, 대체근무 프로그램의 경우 40대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뿐, 업무노력의 증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근무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업무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직무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건강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60대 이상을 제외한 40대 이하, 40대, 50대의 세 부류의 연령층의 해당 프로그램 참여 교정공무원들에게 업무노력 및 직무만족의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의 크기(베타)는 50대, 40대, 40대 이하의 순

〈표 5〉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가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업무노력		직무만족	
	베타	표준오차	베타	표준오차
통제변수	관리직위	.118**	.016	.165**
	연령	.032*	.011	.046**
	근속년수	-.116**	.011	-.079**
	성별	.079**	.014	.043**
독립변수	대체근무	.038**	.014	.044**
	건강보조	.060**	.009	.068**
	가족돌봄	.012	.024	.061**
모형적합도	수정된 R제곱	.030		.043
	F	46,393**		65,752**

*p<.05 **p<.01

〈표 6〉 연령별로 세분화된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40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업무노력	직무만족	업무노력	직무만족	업무노력	직무만족	업무노력	직무만족
통제변수	관리직위	.092**	.117**	.138**	.186**	.113**	.172**	.009
	근속년수	-.095**	-.079**	-.072**	-.045**	-.074**	-.060**	-.045
	성별	.053**	.044**	.087**	.056**	.100**	.026	.039
독립변수	대체근무	.019	.089**	.030	.024	.076**	.022	.085
	건강보조	.054**	.054**	.062**	.074**	.076**	.084**	.033
	가족돌봄	-.003	.060**	.029	.061**	.000	.051*	.083
모형적합도	수정된 R제곱	.020	.038	.033	.047	.037	.043	-.021
	F	12,206**	23,224**	11,542**	37,751**	15,475**	17,981**	.532

*p<.05 **p<.01

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을 제외한, 40대 이하, 40대, 그리고 50대의 연령층의 교정공무원들이 참여한 경우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얻게 된 요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

우선, 전통적인 형태의 워라밸 프로그램인 대체근무제(Telework & AWS)의 참여비율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교정공무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38.3%가 재택근무(tele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4.5%의 교정공무원들만이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정시설의 관리 및 수형자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교정기관의 특성상 재택근무는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연시간근무제(AWS)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38.5%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22.2%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정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교정근무자들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하는 AWS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기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정공무원들은 업무의 스트레스원(stressor)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 여파로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도움을 제공하는 건강보조 프로그램(HWP & EAP) 참여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 신체적 건강문제의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HWP의 경우 연방공무원의 28.2%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25.3%가 참여하고 있어 그리 큰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중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를 골자로 하는 EAP의 참여비율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32.3%로 나타나 일반직 공무원의 14.2%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2.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대체근무제와 건강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노력의 정도와 직무만족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만족을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건강관리, 가정친화 등 미국의 연방정부와 유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복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외부의 사설 기관(예 - 병원 : 건강진단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설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함으로써, 각 부처 혹은 업무환경에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조건에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프로세스의 특성상 대체근무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없는 제약도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허락되는 한 우리나라 교정관들 역시 대체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교정기관과 같이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교정공무원들이 EAP의 참여비율이 여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로 교정공무원들을 위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심리적 ·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HWP의 경우 교정공무원들의 심리적 · 신체적 건강상태를 미리 점검해 주고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육아보조 프로그램(CCP)이나 노인돌봄 프로그램(ECP)의 경우, 육아 및 노인 돌봄의 책임이 있는 연령층의 교정공무원에게 집중하여 운영하되, 업무노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지는 못하며,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효과만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간접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문선희(2013), '기업복지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가정생활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제도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1호*, pp.119-141.

문영주(2014), '사회복지사의 가족친화문화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일-가정갈등과 일-가정화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3호*, pp.121-145.

박정수/진종순(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제13권 제3호*, pp.183-200.

양점미/문승연(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41호*, pp.99-131.

오인수/김광현/황종오/유태용/박영아/박랑희(2007),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인사조직연구 제15호*, pp.43-86.

윤옥경(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15호*, pp.80-107.

이민식(2006),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가 직무만족 및 전직희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99-138.

이수정/윤옥경(2004),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교정연구 제25호*, pp.7-34.

이홍규(2018), '외식산업에서 직장-가정 지원이 직무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9호*, pp.67-77.

이형우/이동영(2019), '미국 해양경비대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중앙분부와 지방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1호*, pp.1-24.

정혜경/하영미/박현주(2014), '교정공무원의 근로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32호*, pp.111-138.

한주희(2006), '보험설계사의 직무동기와 직무특성이 일-가족 갈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46호*, pp.3-31.

한주희/고수일(2006), '성과-보상 연계성, 스트레스 및 내재적 동기의 관계', *인사관리연구 제30권 제2호*, pp.25-44.

■ 외국문헌

De Cooman, R., Styven, D., Van den Broeck, A., Sels, L., & De Witte, H.(2013), How job characteristics relate to need satisfaction and autonomous motivation: Implications for work effor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3(6), pp.1342-1352.

Grover, S. L., & Crooker, K. J.(1995), Who appreciates family-responsive human resource policies: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the organizational attachment of parents and non-parents, *Personnel psychology*, 48(2), pp.271-288.

Lee, H. W.(2019), "How does sustainability-ori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work?" Examining Mediator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https://doi.org/10.1080/01900692.2019.1568459>

Lee, S. Y., & Hong, J. H.(2011), Does family-friendly policy matter? Testing its impact on turnover and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6), pp.870-879.

Masi, D. A., & Jacobson, J. M.(2003), Outcome measurements of an integrated employee assistance and work-life program,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3(4), pp.451-467.

Mohr-Jackson, I.(1991), Broadening the market orientation: an added focus on internal custom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0(4), pp.455-467.

Pfau, B., Detzel, D., & Geller, A.(1991), Satisfy your internal customers,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12(6), pp.9-13.

Porter, L. W., & Lawler, E. E.(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Vogel, W., Raymond, S., & Lazarus, R. S.(1959), Intrinsic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stres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2), p.225.

Weibel, A., Rost, K., & Osterloh, M.(2009), Pay for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Benefits and (hidden) cos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2), pp.387-412.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조국 법무부장관은 9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운영상황 전반 및 과밀 수용 실태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과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교정본부장,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9월 30일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정위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화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최강주 교정본부장을 비롯하여 서울지방교정청장,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수, 교정위원 활동현황 보고, 교화미담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서울생활사박물관 내 교정전시관 개관

9월 26일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서울생활사박물관 내에 교정전시관이 개관되었다. 구치감 공간을 활용한 교정전시관은 실제 수용거실을 재현하였으며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소개와 교도관 수용자 복장 체험 코너,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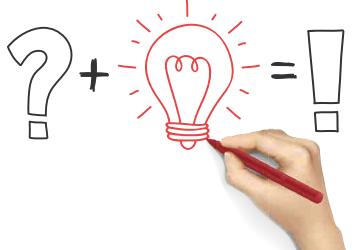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내무부 대표단 방한

말레이시아 내무부 대표단이 9월 27일 방한하였다. 이날 내무부 스리 일위빈 이브라힘 사무총장 등 5명은 한국의 선진 교정 행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중앙통제실, 직업훈련동, 심리치료시설, 인공신장실 등을 참관하였다.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교정본부가 9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의 집'과 '명륜 보육원'을 위문 방문하였다. 이날 교정정책 단장 등 4명은 시설 아동을 격려하고 격려금 30만 원과 생필품, 다과류 등을 전달하였다. 교정본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명절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교정행정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교정본부가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교정행정 발전과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교정행정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교정공무원 처우·수용관리·각종 제도 개선 등이며, 공모 대상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시달된 공문 참고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성희룡·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9월 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4대 폭력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희룡·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성희룡 상식에 대한 오류,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예방과 관련한 정의 및 개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유승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서울구치소는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생활자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러한 위문활동은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설 생활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국제나은병원과 직원 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안양교도소는 9월 25일 국제나은병원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양교도소 직원 및 가족은 상급병실 입원 시 입원비가 50% 감면되며, 수술, 진료(비보험 대상) 및 검사(MRI, 초음파 등) 시 진료비가 10% 감면된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수용자 대상 문화공연 개최

수원구치소는 9월 19일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수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하였다. '좋은 사람들 아트센터'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가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수용자들은 마술쇼, 팝페라, 가곡, 통기타, 시·낭송 등 음악과 문학이 어우러진 공연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9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민자숙 전문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 처벌 강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청렴 의지 확산 행사 개최

인천구치소는 9월 25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과 청렴 스티커, 청렴 퀴즈를 부착한 간식 등을 배포하는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영국 윙립보호교정청 보호관찰소장 참관 행사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3일 영국 윙립보호교정청 보호관찰소장인 크리스틴 해리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크리스틴 해리는 의료과, 수용거실, 분류센터, 중앙통제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교정행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청렴유적지 '고불 맹사성 기념관' 탐방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25일 청렴유적지인 '고불 맹사성 기념관'을 탐방하였다. 이 활동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근교에 위치한 청백리, 충신의 유적지를 방문하여 선열들의 청렴 가치와 사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다. 이날 직원들은 고불 맹사성 기념관과 고택을 탐방하며 맹사성의 청렴 정신을 배웠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의정부교도소는 9월 20일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맞이하였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은 수용동과 심리치료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어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사랑의 손잡기' 위문금 전달

여주교도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추석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결연을 맺은 가정 7곳에 '사랑의 손잡기'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직원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균형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범죄피해자기정,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금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돋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춘천시립예술단 음악나들이 작은 소풍' 문화공연 실시

춘천교도소는 9월 9일 대강당에서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춘천시립예술단 음악나들이 작은 소풍'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춘천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춘천시립예술단의 지원으로 실시되었으며,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 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로 꾸며졌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9월 19일 집중인성교육장에서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출소예정자 28명에게 1 대 1 맞춤형 취업 상담을 하고 소상공인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원주 청정고을명가 등 15개 업체가 참여하여 출소 후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강릉교도소는 9월 4일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혼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영월교도소 직원봉사회는 9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노아의 집'과 영월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쌀을 기탁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김관순 '사랑의 손잡기'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9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손잡기'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전 직원이 모금한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의 '미소봉사단'은 추석을 앞둔 9월 9일 청사 청소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대구지방보훈청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위한 위문금을 위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청렴 의지 확산 행사 개최

대구교도소는 9월 9일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교정 가족, 교정위원, 관계 외부업체 등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앞서 9월 2일에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명절에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을 받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는 등 반부패 청렴 의지를 굳게 다졌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창원교도소는 9월 18일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노파 측정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담을 실시하였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도왔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부산교도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4일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쌀, 과일 및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세제 등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조리원 및 시설관리원 등 무기·기간제 근로자 9명에게도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포항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4일부터 5일간 불우 이웃돕기를 실천하였다. 포항교도소는 지역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가정 3곳, 사회복지시설 2곳, 노인회관 등 총 6곳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청렴 의지 확산 행사 개최

진주교도소는 9월 6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의식 확산을 위해 '방문 민원인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OX퀴즈를 진행하며 다 함께 청렴 의지 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 혜화여자고등학교 준법교실 및 봉사활동 행사 실시

대구구치소는 9월 11일 혜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실 및 봉사활동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혜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준법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법규 준수와 교정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후에는 접견실과 청사 주변을 청소하며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추석을 앞둔 9월 10일 '은혜의 집'과 결손가정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김진경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참된 나눔의 가치를 깨닫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 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사회복지시설, 상리리 마을회관, 관내 불우 이웃 등 5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자

친 소외되기 쉬운 불우이웃들이 좀 더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11일 창원 소망원과 인근 1사 1촌 결연마을인 '진보면 세장리'와 지역 내 저소득계층 5가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여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 김천행복한요양원' 김천실비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통영구치소는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9월 10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위문금을 지급하였다. 앞으로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위문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울산시 1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는 9월 10일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울산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7개 성장다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종양정부의 사업 유치와 정책 대응을 통해 울산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경주교도소는 9월 6일과 9일 인근 마을 노인회관과 독거노인·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솔선하여 지역의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통영구치소 '통영시랑나눔회'는 9월 4일 추석을 앞두고 이동복지시설 '아이들동지&파란나라'와 노인복지시설 '소망원'을 비롯해 통영시 용남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5가정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통영구치소는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밀양여자중학교 참관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밀양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진로체험 및 교정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정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구내 시설을 견학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사랑의 행복나눔 행사' 개최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9월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랑의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희망재활원' '목가리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불우 이웃 2가정을 찾아 각 가정에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제9회 법무부장관기 본선 야구대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21일 대전 갑천야구장에서 제9회 법무부장관기 본선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전교도소 등 8개 본선 진출 기관은 팀들이 갈고 닦아 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정기관 야구 동호인들은 더욱 화합하고 발전된 축제의 장을 만들기로 다짐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짜장면 2,800여 그릇 제공

대전교도소는 9월 1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로부터 짜장면 2,800여 그릇을 제공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추석을 앞둔 수용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민석 대전교도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짜르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위 빅해양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청주교도소는 9월 19일 마인드 심리상담연구소 서은경 소장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과 아동학대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9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복지시설과 결연가정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해당 기관은 '삼일육아원'과 '사랑과 평화의 집' '반딧불미' 등이다. 천안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사랑의 팝콘 나눔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9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 58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를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차례를 통해 수용자들은 차례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며 따뜻한 한가위를 보냈다. 합동차례를 지난 한 수용자는 "조상님의 음성을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공주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불우이웃을 찾아 전 직원이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주교도소 봉사동호회에서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 직원이 함께한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충주구치소는 9월 18일 기관운영 실태 및 교정행정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을 맞이하였다. 이날 충주구치소는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재배치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모범교도관 포상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9월 6일 홍주성 일원에서 '새로움

을 탐험하다! 2019 홍성군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홍성교도소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상담과 포승, 수갑 등 교정장비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수용자 합동차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2일 수양관 강당에서 수용자 58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를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차례를 통해 수용자들은 차례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며 따뜻한 한가위를 보냈다. 합동차례를 지난 한 수용자는 "조상님의 음성을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사랑의 손잡기'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인근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9월 1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등을 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직원들과 함께하는 추계 문화 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19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추계 문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1관부터 5관까지를 둘러보면서 광주만의 특별한 디자인 산업과 각종 예술 디자인을 접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재 흥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직원 상호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바른안과의원과 직원 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광주교도소는 9월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바른안과의원 회의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안과의원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직원 및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교정협의회 1,400인분 송편 기증

전주교도소는 9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1,400인분의 송편을 후원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맛있는 송편과 더불어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정봉수 소장은 “우리 이웃들이 나눔의 온기를 받아 소외되지 않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9월 9일과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소전원’과 ‘목동미을 노인회’ 등 6곳을 위문 방문하였다. 목포교도소 사령나눔회는 전 직원들이 매월 성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명절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군산교도소는 9월 20일 수용자를 위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용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도록 행사 장소에 아트풍선을 비치하고 클래식 기악 공연을 실시하였다. 김영식 소장은 “수용자들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수용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제주교도소는 9월 9일 소외된 이웃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라교정봉사회’의 성금으로 ‘인효원’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훈체어, 쌀 등을 지원하고, ‘시랑의 손잡기’ 가정을 방문하여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였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물 절약 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 6일 한국 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지사 최돈혁 강사를 초빙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물 절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최돈혁 강사는 장흥교도소의 물 사용량과 국민 사용량을 비교·분석하고, 물의 소중함을 교육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화산중학교 학생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해남교도소는 9월 16일 화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정시설을 침관하고 교정장비를 체험하였으며 올바른 준법의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정읍교도소는 9월 4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위문 방문하였다. 그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든 기금으로 생필품, 과일 등을 구입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소정의 위문금을 지원하였다.

교정공제회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 참석

교정공제회가 9월 26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발족식에서 법무부 반부패·청렴시책을 공유하고, 청렴 수준 동반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민·관협의회 운영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국군교도소

명사 초빙 특별 강연 개최

국군교도소가 9월 16일 도자기 명인 ‘도광 김경선’ 선생을 초청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다. 도광 김경선 선생은 ‘도예가의 삶, 인내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직접 도예 시연을 선보였다. 국군교도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초빙 강연을 통해 수용자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개인별 맞춤 근무지 배정으로 소속 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보안3부 직원들의 근무지정 업무 담당자로 근무 지역의 특성과 직원들의 업무 방식,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원활한 수용관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서울



대구구치소
교위 김수곤

대구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시설물 점검으로 교정사고 예방

보안4부 보안청소 담당자로 평소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위생적인 수용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보안장 애물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과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물품 차단, 수용자에 대한 시선 내 계호 등 원칙에 입각한 근무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전



정읍교도소
교위 김훈영

광주



교도작업 활성화 및 위탁작업장 신축에 기여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구입 담당자로, 수용자들이 교도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정역집행률을 제고하였다. 또한 구내 위탁작업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작업장이 원만하게 신축되도록 이끌었다.



審
별나는
내일!
정리 편집실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교정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직장인 정수민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 평소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분석합니다. 며칠 전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보게 된 교정본부의 유튜브 영상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이 구치소를 체험하고, 시시때때로 탈옥(?)을 시도하는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엄격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영상에 나온 분들은 너무나 친근했습니다. 또 영상 편집 방법이나 콘텐츠도 흥미로웠습니다.

매일같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에서 교도소, 구치소 이야기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 특성상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

여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SNS 채널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즐거움을 주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다 잠깐 교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지만, 앞으로 종종 교정본부의 SNS 채널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일상을 알려 주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정공무원들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정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서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에 화답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교정 날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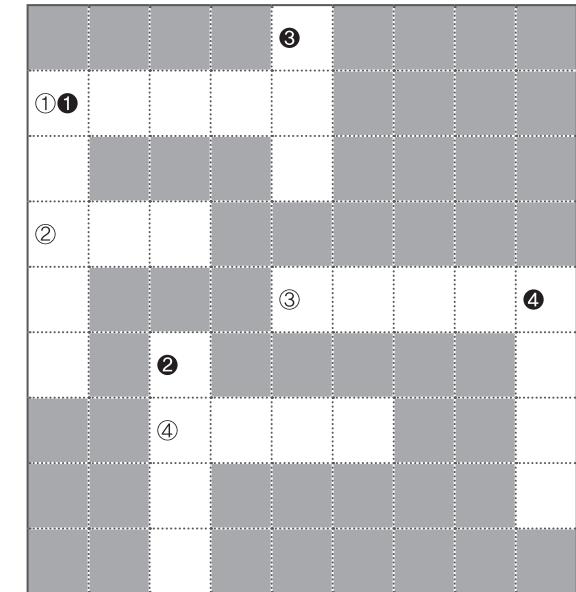
가로열쇠

①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이 접견실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심리적 위축감 없이 가족과 편안하게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태양이 우주 혹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그 주위를公전한다는 우주관이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이를 주장하며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기준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③ 2016년 10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성폭력, 아동학대, 미약, 알코올 등 습관성 및 중독성 수용자들에 대한 재활교육과 관리를 위해 개설한 이 과는 무엇일까?

④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에 젖은 상태를 말한다. 직장인들 중 약 75%가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세로열쇠

① 교정시설의 심화 교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가정의 가장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용자가 건전한 가장으로 자리 잡아 사회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이다.

② 지역과 지역이 서로 돋거나 교류하려고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③ 1993년 5월경에 이루어진 ○○○ 제5차 개정 작업은 수용자 징벌규정 중 감식별 삭제, 변호인 접견 시 청취 금지, 미결수용자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④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논어』의 <선진편>에는 이 고사성어와 관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 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의 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교정〉 애독자로 매월 발행되는 책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필 원고를 작성하여 '교정 희망의 백일장' 코너에 투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우성 님(장흥교도소 교우)

각 구치소, 교도소의 동아리나 모임을 기획취재하고 홍보하며 기사화했으면 합니다. 개인화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직장 내 회합과 단결, 우정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소의 명문동아리도 알 수 있기에 흥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임태규 님(서울구치소 교도)

항상 보내 주신 〈교정〉지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정 희망의 백일장'에 참여하려고 출시 한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족한 글짓기 실력이지만 나무라지마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조석으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교정〉지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는 좋은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현기 님(장흥교도소 교우)

지난 호 퀴즈 정답

①유	②독
연	립
③특	기
④뽀	래
시	기
간	념
점	관
②금	상
심	
④가	실



복종우 님(서울지방교정청 교우)
이병국 님(진주교도소 교우)
현정준 님(순천교도소 교사)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강승열 님(원주교도소 교도)

교도소가 궁금해? 유튜브에서 '교도소 24시'를 검색해 보세요!



교정본부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교정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도소 24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